

코로나 느릿느릿 감소세... “한달 뒤 2만~6만명대 확진”

비수도권, 주간 위험도 6주 만에 하향 BA.5 검출 97.1%...국내 감염 99% 차지

당국이 연구 기관을 통해 실시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결과 한 달 뒤에 2만~6만 명대 확진이 전망됐다.

당국은 당분간 큰 규모의 유행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추석 연휴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는 만큼 개인 위생 수칙 등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3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델링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확진자 발생이 당분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변이 확산과 같은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당분간 큰 규모의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연구 기관에게 의뢰해 실시한 코로나19 향후 전망치를 보면 5개 기관 모두 9월 중에 유행이 반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유행 규모로는 2주 후 5만명대, 4주 후 2~6만명대가 제시됐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8월 1주 ‘높음’ 단계로 격상된 이후 6주 만에 ‘중간’ 단계로 하향됐다. 전국과 수도권은 10주째 ‘중간’ 단계를 유지 중이다.

임 단장은 “확진자 등 발생 및 의료대응 관련 지표가 대다수 개선된 상황과 주간 일평균 발생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발생이 수도권과 유사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주간 확진자 수는 전주대비 19.9% 감소한 47만9788명으로 하루 평균 6만8541명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7으로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수치 1.0 미만을 3주째 유지했다.

확진자 수가 감소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대비 3.6% 증가해 483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19.4% 감소한 415명이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확진으로부터 위중증까지 진행되는 기간을 전망하면 평균적으로 2주 정도”라며 “현재 나타나는 것(위중증 환자 수)은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보면 우세종인 BA.5의 검출률이 97.1%, 국내 감염 중에선 99%를 차지했다.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 변이는 16건이 추가돼 누적 152건이 파악됐다. 이 밖에 미국에서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는 BA.4.6 변이는 1건 늘어 총 24건이 발생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평균 23.4%로 전주대비

1.9% 포인트 감소했다.

임 단장은 “일률적인 거리두기 없이 여름철 대유행의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의 덕분”이라면서도 “작년 추석 연휴 당시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단장은 “일상 복귀 전에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진료를 받아주시고, 음성인 경우라도 증상이 지속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고위험군은 외출과 만남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3밀’ 환경이 나 타인과의 신체 접촉은 가급적 피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올 가을·겨울 코로나19-계절독감 트윈데믹 우려... “동시검사법 검토중”

방역당국 “겨울보다 이른 시기 코로나와 동시유행 가능”

방역 당국이 올 가을·겨울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비해 동시검사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감염병 모두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유사한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해내기 위해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3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환자가 의료기관에 갔을 때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며 “동시 검사방법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각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다. 질병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감시 36주차 독감 의심환자(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4.7명으로, 5주 전부터 32주차 3.3명→33주차 3.7명→34주차 4.2명→35주차 4.3명→36주차 4.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같은 시기(36주차) 의심환자 발생 추이를 비교하더라도 2018년 4.0→2019년 3.4→2020년 1.7→2021년 1.0→2022년 4.7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2021년 눈에 띄게 떨어졌다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단장은 “직전 2년은 독감이 거의 없다가 되었고 때때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는데, 올해는 7월 이후부터 이례적으로 발생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겨울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유행도 가능하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동시에 독감이 유행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당국 “코로나19 변이 반복적 발생... 집단면역 달성 어려워”

반복적 변이 발생으로 면역 유지 어려워 감염·위중증 예방에 백신 여전히 효과적



크론 변이 유행으로 이 개념이 깨졌다는 것이다.

백신이나 자연감염에 의한 면역력이 평생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고,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예방효과가 떨어져서 재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데

이더도 확보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예전에 기대했던 바와 같은 ‘집단면역’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코로나19에서 자연감염 또는 백신에 의한 집단면역 수준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다”라며 “변이로 면역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예전만큼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에는 백신 접종이나 자연감염을 통해 획득한 면역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후 델타 변이와 오미

이더도 확보했다.

박 팀장은 “집단면역 수준이라는 개념은 예전과 같은 의미로 쓸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염과 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예방접종인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이 1.41%인 데 비해 2차 접종자는 0.44%, 3차 접종자는 0.07%로 떨어진다. 백신 접종하면 위중증 환자가 될 위험이 줄어드는 셈이다. 백신 미접종자 대비 2차 접종자의 예방효과는 68.8%, 3차 접종자의 예방효과는 95.0%에 달한다.

반면 8월 5주차 위중증 환자의 24.6%, 사망자의 31.6%가 백신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미접종자다.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가 12% 내외인 점과 비교하면 미접종자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뉴시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small>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small>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